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연합어린이여름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동영상, 주제가 찬양)
- 1부예배 및 유초등부 방학: 다음 주일부터 8월 23일 주일까지
- 지난 주 방문: 정희경, 봉지은
- 한국방문: 채해웅-홍혜정/경원 경준 경민, 민경웅-박희영/채우 지음, 송인선
- 교환학생: 박유진
- 생일축하: 최성호, 채경원, 이선영, 김다윗, 이태규
- 교역자 휴가: 이동훈 목사(8월 2일, 9일)

◆말씀일기 일정

일/사9:1-7	월/사9:8-10:4	화/사10:5-19	수/사10:20-34
목/사11:1-16	금/사12:1-6	토/사13:1-22	일/사14:1-23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82독

◆ 예배위원 안내 ◆

	7월 26일	8월 2일	8월 9일	8월 16일
예배기도	한연재	서정인	양귀남	오지훈
안내위원	예배부			
봉헌위원	나지홍 최성호	이선영 단주현		
애찬위원	밥상 일곱	밥상 여덟	밥상 하나	밥상 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주일에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담임/ 손교훈 목사 Pf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1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76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81장	다	함	께
기도/Gebet		한상철	장로	
찬양/Chor	413장	전교인	찬양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이사야 9:1-7	인	도	자
설교/Predigt	하나님의 열심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84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Missions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

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이사야 6:1-13 ‘부르심의 이유’



부르심의 육하원칙이 잘 드러난다.
 이사야가(누가),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언제)
 성전에서(어디서), 주의 부르심을 받는데(무엇을)
 스랍이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댄다(어떻게)
 백성의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도록 하기 위해서(왜)

부르심의 목적이 황당하다.
 백성들이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을 불러 그 입술을 불로 지지고는,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케 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황폐하게 하려고 보내신다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혀 이해 못할 것은 아닌데,
 당시 이사야도 그렇게 느꼈던 걸까?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사야는 그 심판을 알리는 징소리처럼 쓰인다.

각종 나무가 베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게 되듯
 지극히 소수가 끝까지 남게 될 거라는
 희망인지 저주인지 잘 모를 부르심 앞에서.
 그래도 그는 희망의 끝자락을 붙들고자 했겠지.
 주께서 다 뒤집어 새 세상을 만드시려,
 일시적으로 손 보시는 것이라 생각했겠지(11).

나도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8) 하면서도,
 내 할 일이 이사야 때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에 답답히
 주여, 이 방정맞은 입술을 지저 주세요(5-7).

▶ 지난 주 봉헌 내역(7월 19일-7월 25일)◀

십일조	월정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권순아	양순이	송인선, 김희원, 정원, 정이나	정기승(여름성경학교), 강판연(여름성경학교) 정기승(장학), 한상철(장학)
총액 1.126,00유로			

